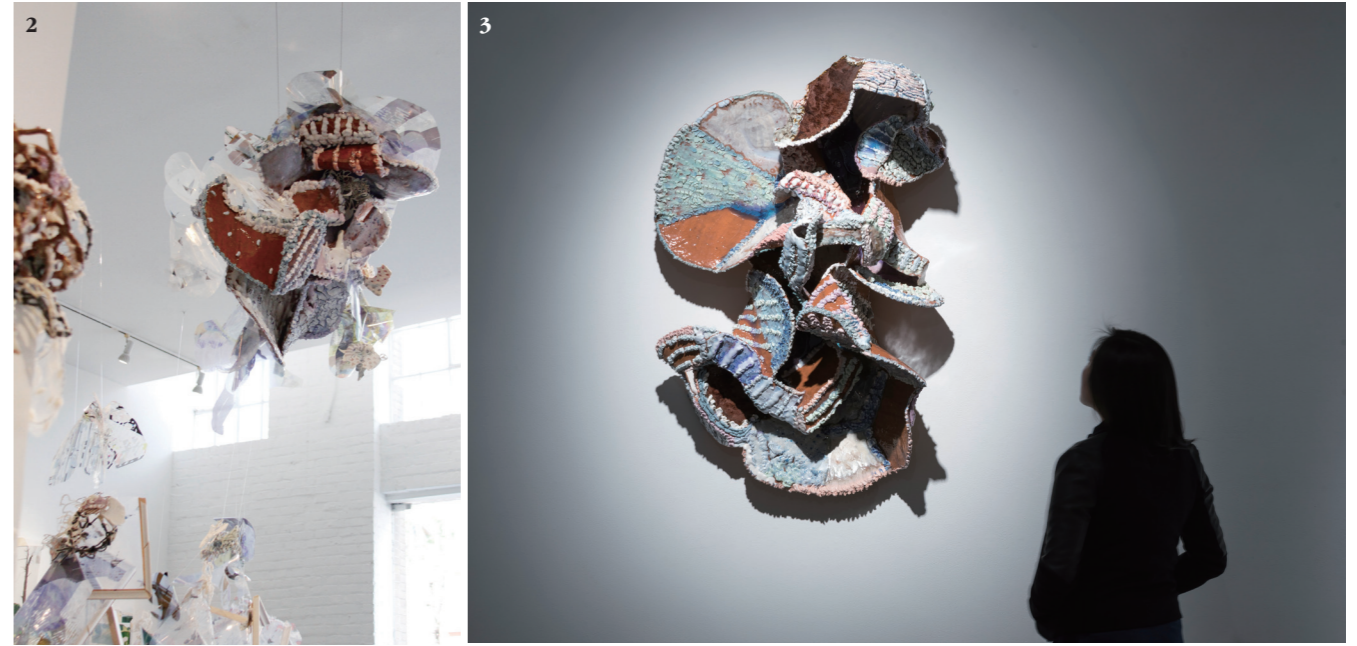


서로 다른 조형적 콜라주 이예림

에디터 곽수경

이예림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도자 작품의 키워드를 찾아낸다. 흙을 통해 시간을 콜라주하는 그녀가 전하는 예술이란 무엇일까.



- 1 「shopping spree」
457×317×406cm,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레진,
아세테이트 필름
- 2 「Shopping spree」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레진,
아세테이트 필름
- 3 「Cross-Continental
(con)Fusing: The Space
Between Series #1」
127×94×45cm,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레진

Q.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예림(이하 이) 미국 조지아 대학교 University of Georgia에서 거주 작가 Resident Artist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 및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제 작품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합니다. 상호작용은 마찰이기도, 때로는 융합·융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동양과 서양, 한국과 미국, 순수한 장식성과 기능성, 탄탄한 구조가 부여하는 안정성과 깨지기 쉬운 도자 고유의 성질 등은 저의 삶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예술로서의 도자를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될 것이라 예감한 순간은 롱비치 스페셜 학생 신분과 알프레드에서의 석사 시절이었어요. 알프레드가 요구하는 엄격한 여러 졸업의 조건들은 저에게 너무나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미국 땅이 주는 외로움과 낯섬은 도전에 버거움을 더했어요. 그런데 낯섬과 버거움이 항상 제 인생에 공기처럼 존재했던 도자를 대하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공간과 언어의 벽으로 단절되고 문화의 차이라는 벽으로 단절된 저의 환경은 도자를 가장 그리웠던 순간을 환기시키는 강력한 매체로 만들었습니다. 도자의 물성이 '흙'이라는 것은 모국의 흙이 갖는 상징을 연관하여 생각했을 때 참으로 절묘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자는 저에게 익숙한 것으로 남지 않았어요. 다른 작업 환경 속에서 도자를 다루는 일은 커다란 도

전이었어요. 저는 이런 물리적인 도전들 속에서 가장 익숙한 존재였던 도자가 한없이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낯설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국에서는 억제되어야 마땅했던 저의 '개성'들이 미국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작품 활동과 삶의 양면에서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경계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때로는 서로 바뀌어 버리기도 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경계가 서로 바뀌기도, 마찰하기도, 융합하기도 하는 과정을 몸으로 겪어낸 일이 이질적인 것의 상호작용이라는 제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클레이 클레이즈'라는 재료를 선택하여 다양한 형상의 오브제를 제작하는데요. 작품에 표면에 얹어진 듯한 유약이 수채화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질감을 표현하는 작품제작과정이 궁금합니다.

이 저는 삶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기 보다는 몸으로 직접 겪으며 터득합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컨셉을 먼저 생각하거나 구상을 정교하게 짜려고 하면 오히려 벽에 부딪히게 되어 바로 제작하는 편입니다. 제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레시피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질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클



레이 글레이즈clay glaze, 유약에 흙 성분을 섞은 것'에서 성분 비율에 따라 녹는점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여러 번 번조합니다. 각각의 비율이 다른 여러 가지 클레이 글레이즈를 유약으로 사용하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 가며 수차례 번조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듯 다양한 비율의 클레이 글레이즈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효과는 클레이 글레이즈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인 유약보다 흙에 가깝기 때문에 두껍게 흐르는 텍스처가 표현된다는 점이에요. 클레이 글레이즈의 사용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표면과 물에 젖어 있는 듯 촉촉한 느낌의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한 가지 비율의 클레이 글레이즈가 아니라 다양한 비율의 클레이 글레이즈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피스에 여러 가지 텍스처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고온에서 녹는 글레이즈일수록 짙고 깊은 색감과 유리질에 가까운 텍스처이고 저온에서 녹는 글레이즈일수록 텍스처가 탁하고 가벼운 색감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이 다양한 텍스처가 하나의 피스 안에서 무작위로 중첩됩니다. 실제로 번조하기 전에 텍스처들이 어떤 식으로 중첩될지는 완벽하게 예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첫 번째 흘러내리는 표면적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흘러내리는 질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번조하기 전에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작품을 제작하는 재미인거 같아요.

Q. 재료의 한계점을 이해하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특히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작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클레이 글레이즈를 사용하여 여러 번 번조하는 작업 방식은 또한 제 작품 세계에 중요한 '긴장감'이라는 요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긴장감, '텐션Tension'이 제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통해 작품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해요. 다양한 온도에서 피스를 수차례 번조하는 행위는 아티스트와 피스 양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요. 아티스트는 자신이 알맞은 온도로 번조하고 있는지 번조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피스가 깨질 위험도 높고, 결과물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스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수차례의 번조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흙은 각자가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티스트와 흙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실험해요. 흙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버릴지 여부는 종잇장 같은 아주 긴박한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긴장과 긴박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스릴을 즐겨요. 또한 제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들 또한 그 긴박함을 느끼고 즐기길 바랍니다. 이 스릴은 제가 흙을 예측할 수 없으며 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 작업은 언제나 흙과 함께 하는 일종의 놀이

- 4 「Cross-Continental (con)Fusing The Space Between」, 84×127×106cm,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레진
- 5 「Deep Simplicity Series」, 검정 스톤웨어, 리튬 큰6 클레이즈

예요. 저는 흙에게 일방적으로 생명을 부여하지 않고, 흙은 자신 고유의 생명을 갖고 저의 작업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작업의 결과물은 그 놀이와 상호 교류의 종착이길 바라요.

Q. 미국에서 작업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젊은 아티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을 저도 겪고 있어요. 전시나 레지던시 기회를 얻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은 신인 작가로서의 숙제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 여유와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 작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은 여전히 매일 부딪치는 과제입니다. 동시에 작가로서 탐구하게 되는 주된 주제들을 비롯해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해야 스스로 질리지 않고, 또는 지치지 않고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새로운 작업 방식이나 재료를 발굴하는 문제 등이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Q. 앞으로 작품 활동 전개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기회가 뒷받침 되어 준다면 미국에서 몇 년 더 머물며 미국 도예를 배우고 싶어요. 미국에는 각국에서 온 여러 작가들을 비롯해 다양한 관객들과 마주치며 소통하는 일이 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것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항상 제 작품 세계를 형성했기에 앞으로 마주치게 될 여러 어려움이 제작업에 어떤 식으로든 스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시들에 계속 지원하고, 조지아에서의 레지던시가 끝난 후에는 다른 레지던시에 지원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이에요. 온전히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을 넘어 이제는 사전에 컨셉을 생각하고 작품을 구상하는 일도 도전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공부하고 탐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동시에 제 작품을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도예가 이예림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 알프레드 대학교 도예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조지아 대학교에서 거주 작가로 있으며 2018년도 미국 「Ceramic Monthly」 Emerging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